한국염료 · 안료공업협동조합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화학시장 정보 제공을 …

화학저널의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화학저널」을 훌륭한 매체로 발전시킨 박종우 원장님과 화학저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새로운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정밀화학산업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귀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염료 및 안료업계는 정밀화학산업의 정확한 흐름과 맥을 집어준 화학저널을 통해 크고 작은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한국염료 · 안료공업협동조합은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늦게 출발했지만 그간 관련업체의 노력과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현재 50여개사가 2500여종의 염료 · 안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염료업종은 21세기에도 정밀화학의 선두업종으로 발전하기 위한 무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 「시장의 세계화」「품질의 세계화」「브랜드의 세계화」를 위해 전진하고 있으며 향후 환경친화성 제품 개발로 「메이드 인 코리아」의 자부심을 실현해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염료산업의 관점에 비춰볼 때 염료, 안료, 중간체 산업이 초정밀화학의 고도 기술집약적 핵심산업으로 선진 화학공업국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데 있어 화학저널이 원부재에 대한 정확한 시장조사와 분석기사를 제공하는 것은 더할나위없이 소중한 자료라고 사료됩니다.
저희 염료조합은 염료, 안료, 중간체 등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원자재 가격변동의 정보를 목타게 갈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염료와 안료업체 입장에서 화학저널은 정밀화학 시장정보와 예측 측면에서 매우 유익한 정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내 유일의 원자재 시장정보를 제공하는 화학저널이 정밀화학업계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매체로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며 다시한번 10주년을 축하합니다.

2001년 5월 3일
한국염료 · 안료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종만

<화학저널 2001/5/21>